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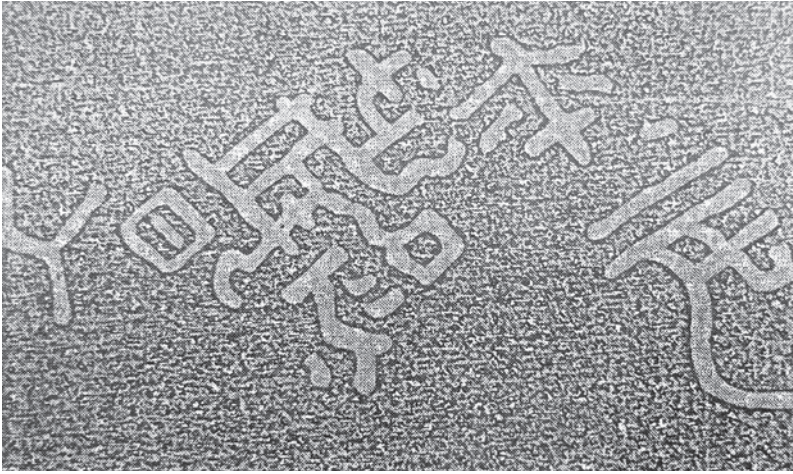
12. 서복(徐福)이 지나간 정방폭포(正房瀑布)²⁴⁾

- ◎ ‘서불과지(徐市過之)’ 추사(秋史)가 탁본(托本), 몽인(夢人)이 밝혀
- ◎ 서복(徐福)은 제주(濟州) 거쳐 일본(日本)으로 귀화(歸化)
- ◎ 서복(徐福) 연구(研究) 중·일(中·日)서 크게 일어

근자에 제주도의 고대사(古代史)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흥미 있게 등장하는 것이 서복(徐福)[일명 서불(徐市)]에 관한 설화다. 『사기(史記)』를 비롯하여 중국의 여러 사서(史書)에는 진시황(秦始皇) 당시 서복이 동남동녀(童男童女) 3천을 거느리고 중국을 떠나 일본(日本)에 귀화(歸化)한 사실이 나온다. 이때 서복 일행이 제주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잔류자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다.

서귀포(西歸浦)는 일찍부터 서복의 전설로 알려져 왔다. 바로 그 진원지(震源地)가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석각(石刻)이 있었다고 알려진 정

24) 『한라일보』 제66호 (1989. 07. 08).



! 서귀포(西歸浦) 정방폭포(正房瀑布) 암벽에 새겨 있었다고 알려진 옛 각자(刻字) ! 약 1백 50년 전에 추사(秋史)가 탁본(拓本)하고 '서불과지(徐市過之)'로 판독(判讀)하였다.

방폭포(正房瀑布) 암벽이다.

재추적(再追跡) 되는 서복(徐福) 전설(傳說)

필자도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정방폭포에 갈 때마다 살펴보고 노 인대학에 출강(出講)하면서 실제 목격했다는 노인들이 있어 다시 현장을 답사해 보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복에 관해서는 제주도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동안 전설 차원에서만 이야기 돼왔다. 그러나 근자에 이것을 역사적 차원에서 구 명(究明)하려는 움직임이 중국과 일본에서 때를 같이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 동기는 서복이 살았던 서부촌(徐阜村)[일명 서복촌(徐福村)]이 나 기상(羅其湘) 교수[서주학원(徐州學院)] 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그의 가

계(家系)와 족보(族譜)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반야효유(飯野孝宥)·무재인남(茂在寅男) 등 여러 학자가 이 방면의 연구에 몰두, 많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학술회의가 열리고 이 방면의 연구서가 출간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필자 자신이 제주도의 서북 전설은 일종의 설화 차원에서만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이들의 연구가 거의 제주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일치되는데 고무되어 다시 이 방면의 추적을 시작했다.

판독(判讀) 힘든 고서각(古書刻)

그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제주도 대정(大靜)에 유배돼 있을 때 우연히 해안 암벽에서 옛 석각을 발견하고 이를 탁본(拓本)하여 놓았는데 이 사실을 발표한 일인 교수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탁본은 “서불과지”의 네 글자로 풀이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다. 진시황 때 벌써 진나라에는 소전체(小篆體)가 나왔다고 하지만 일반은 판독하기가 어렵다.

충원 회(塚原 熹)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탁본 끝에 조선시대 말의 서예가 몽인(夢人) 정학교(丁鶴喬)가 고증서(考證書)를 써 붙이고 있다.

秦始皇二十八年 方士徐市等 與童男女入海 求三神山不死藥 過朝鮮

國耽羅嶋²⁵⁾ 刻石壁曰 徐市過之 (中略) 金侍郎秋史先生曰 累滯海島 窮搜多摺 以之流布 此幀²⁶⁾ 示其一紙 從茲好古之士 可助眼福之一簣 世餘年事也 夢人 丁鶴喬

“진나라 시황 28년(BC 219) 방사 서불(徐市) 등은 동남동녀와 더불어 바다로 나가 삼신산의 불사약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탐라 섬을 지나면서 석벽에 서불과지(徐市過之)라고 새겨 놓았다. (중략) 추사(秋史) 선생이 말하기를 여러 해 섬에 묵으면서 많은 석각을 찾아 탁본하고 세상에 알렸는데 이것은 그 중 하나다. 따라서 옛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석각은 남해도(南海島)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불기배일출(徐市起拜日出)” [한국의 고자(古字)로 보는 별설도 있음]의 여섯 각자와 너무나 근사하다. 또 일본 북해도(北海道)에 있는 동굴의 각자와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거의 같은 시기, 같은 계통의 사람들에 의하여 새겨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족적(足跡) 남긴 서복(徐福) 항로(航路)

이 소중한 자료는 우리나라 금석학(金石學)의 대가(大家)인 김정희(金正喜)가 적어도 1백 50년 전에 직접 탁본을 하였고 또 여러 서체(書體)에

25) 도(嶋)는 도(島)와 동자(同字)이다.

26) 신문에는 돈(頓)이라 되어 있다. 정(幀)으로 바로 잡음.

뛰어난 서화가인 정학교(丁鶴喬)가 고증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흔히 있는 설화처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또 한 번의 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에 서복의 대항해(大航海)를 집중 추적하고 답사 연구하고 있는 팽쌍송(彭双松)씨[대만(臺灣)] 무재인남(茂在寅男) 교수[일본 동해대(東海大)] 등에 따르면 서복 일행은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낭야(琅琊)를 출발하여 한반도 서남 해안을 따라 제주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을 떠난 일행은 다시 일본 구주(九州) 좌하현(佐賀縣) 이만리(伊萬里)에 도착하고 여기서부터 구주(九州)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일본 열도의 뢰호내해(瀬戸内海)를 전전하면서 웅야(熊野)[화가산현(和歌山縣) 신궁시(新宮市)]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또 부사산록(富士山麓) 청수삼보포(清水三保浦)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 일본에는 이들이 거쳐 간 곳곳마다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웅야(熊野)에 덕천뢰선(德川賴宣)가 세운 서복의 묘(墓)를 비롯하여 비(碑) · 신사(神社) · 사당(祠堂) 등 도처에 많은 유적과 진성(秦姓) 등 그들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진인(秦人)의 후예들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서복과지의 각자와 전설을 빼고는 아직 확실한 유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방폭포의 암벽에는 정조 때(1781~1782)의 목사 이양정(李養鼎)과 그의 막료, 그리고 1903년 9월 27일에 이곳을 탐방한 목사 홍종우(洪鍾宇)와 정의군수(旌義郡守) 채수강(蔡洙康) 등의 각자가 확인될 뿐이다.

서귀포(西歸浦) 지명(地名) 유래(由來)도

서복의 전설은 정방폭포에만 있지 않고 서귀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서복이 돌아간 포구라고 하여 서귀포(西歸浦)가 되었다.”는 설이다. 물론 모든 학자가 다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터무니없다고 일축해버릴 반증도 아직 없다.